

기출문제 해설 강의

大韓國史

2014년 9급 지방직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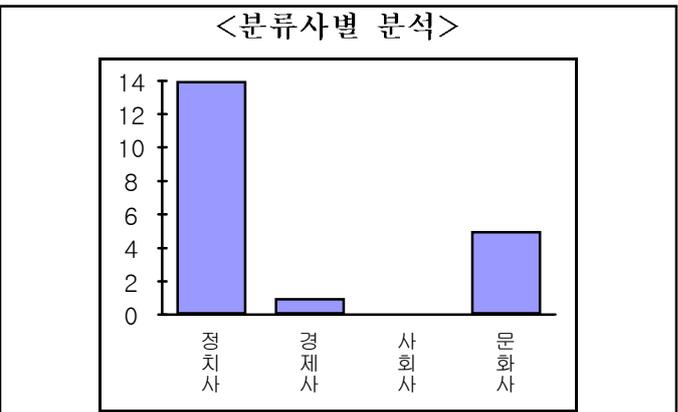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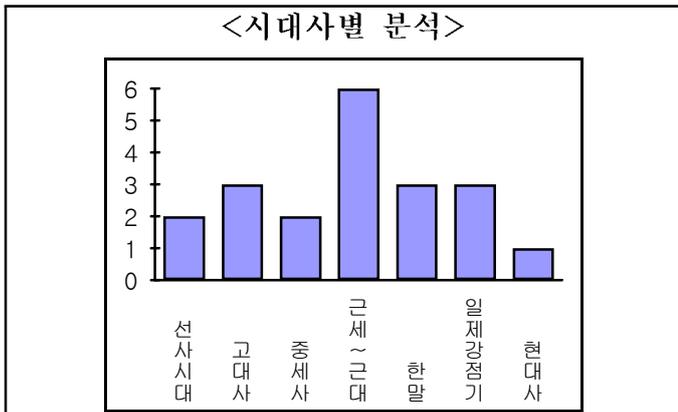
-C책형-

윤승규의

* 大韓國史
윤승규

문제 유형 분석표

분 류	문항 수	내 용	대한국사로 확인하기		
			2014년 대한국사 기본서	대한국사 600제	최종정리 200제
선사 시대	2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 •부여와 삼한	☞ 70쪽 ☞ 110~128쪽	☞ 5번 ☞ 27번	☞ 6회 2번 ☞ 2회 13번, 6회 13번 10회 16번
정치사	고 대	•삼국시대 금석문 •발해 무왕과 선왕	☞ 171쪽 ☞ 257, 258쪽	☞ 67번, 68번 ☞ 85번, 86번	☞ 2회 7번 ☞ 2회 8번
	중 세	•고려의 대외관계	☞ 345, 347, 351쪽	☞ 111번	☞ 10회 5번
	근세~근대대동기	•임꺽정의 난 •예송 논쟁 •영조	☞ 388쪽 ☞ 446쪽 ☞ 452쪽	☞ 143번 ☞ 144, 150, 151, 154, 155, 293번 ☞ 163번 228번	☞ 1회 7번, 7회 11번 9회 9번, 10회 17번
경제사	고 대	•민정문서	☞ 530쪽	☞ 208번, 209번	☞ 1회 13번, 6회 20번
	중 세				
	근세~근대대동기				
사회사	고 대				
	중 세				
	근세~근대대동기				
문화사	고 대				
	중 세	•의천	☞ 752~755쪽	☞ 318, 319, 320번	☞ 2회 15번, 4회 5번 10회 2번
	근세~근대대동기	•몽유도원도 •조선시대 의궤 •이항 '성학십도'	☞ 950쪽 ☞ 971, 1000쪽 ☞ 804쪽	☞ 329, 330, 331번	☞ 10회 9번 ☞ 9회 3번
근현대사	한 말	•강화도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경 •근대적 개혁의 시행 순서 •박은식 '유교구신론'	☞ 1004, 1020쪽 ☞ 1023, 1036, 1045, 1048쪽 ☞ 1152쪽	☞ 418번 ☞ 444번, 449번 ☞ 539번	☞ 6회 12번 ☞ 7회 2번 ☞ 5회 15번
	일제강점기	•신민회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국의 독립운동	☞ 1072, 1073쪽 ☞ 1070, 1257쪽 ☞ 1189, 1243, 1250, 1270쪽	☞ 474번 ☞ 508, 509, 540번 ☞ 493, 529, 532번	☞ 10회 11번 ☞ 1회 17번, 9회 20번 ☞ 2회 20번, 4회 8번 8회 2번
	현대사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1305, 1306쪽	☞ 551번	



문제 해설

문 1. 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우충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 ②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71쪽 참고)

☞ 중원 고구려비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 칭하고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고 낮추어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알아두기

*대한국사 사료집 - <사료로 보는 전근대사-정치사 2-17> “중원고구려비”

5월에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上王公)과 함께 동쪽 오랑개 신라 매금(寐錦)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구려대왕은 태자 공과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에게 명하여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다. …… 12월 23일에 신라 매금이 고구려 당주인 발위사자 금노에게 신라 국내의 사람들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200제 2회 7번. 삼국 시대 각국의 금석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광개토태왕릉비는 주몽을 추모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 ㄴ. 영일냉수리비는 재산분쟁의 해결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ㄷ. 광개토태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 울진봉평비에는 신라왕이 매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 ㄹ. 사택지적비는 축성에 노동력을 동원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문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에서 시체를 가져 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나)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를 천군이라 했다. 여러 국(國)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읍이 있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 보내지 않았다. - 삼국지 -

< 보 기 >

ㄱ. (가)-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ㄴ. (가)-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ㄷ. (나)-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의 계절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ㄹ. (나)-동이(東夷)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10쪽~128쪽 참고)

☞ (가)는 부여, (나)는 삼한에 대한 자료이다.

- ㄴ. 부여에서는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전쟁에 패배할 경우, 왕을 교체할 만큼 고대 국가의 왕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이 미약한 연맹체의 맹주에 불과하였다.
- ㄷ. 삼한에서는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씨뿌리기가 끝난 5월 계절제(수릿날로 단오의 기원), 10월 계절제(상달제의 기원, 또는 8월 추석절)가 열렸다.
- ㄱ.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 ㄹ. 부여는 만주의 농안, 장춘을 중심으로 한 송화(송화) 강 유역의 넓은 평야 지대에 자리 잡고, 국경은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다.

알아두기

*대한국사 사료집 - <사료로 보는 전근대사-정치사 2-7> “삼한”

한은 대방 남쪽에 있다. 동서는 바다에 이어져 있고, 남은 왜와 연결되어 있는데 넓이는 4,000리(4천리)나 된다. 마한, 진한, 변한이 있다. …… 귀신을 믿어서 나라의 읍들이 각기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주관케 하였으니 그 이름을 천군이라 하였다. 나라마다 각각 소도와 부르는 별읍이 있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 모든 도망 온 자들이 소도에 이르면 돌려보내지 않으니 도적질을 좋아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적중 문제 ⇨ 주제 · 사료 · 선다 적중

200제 2회 13번. (가), (나)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옛 풍속에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5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별읍(소도)이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 ① (가)는 약탈경제가 발달하여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고 있었다.
- ② (가)는 옥저, 동예를 정복하여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 ③ (나)는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를 거행하였으며 두레가 발생하였다.
- ④ (나)는 읍군, 삼로와 같은 군장들이 지배하였으며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정답 ③

문 3. 다음 중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 ① 신윤복의 미인도
- ② 안건의 몽유도원도
- ③ 정선의 인왕제색도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950쪽 참고)

☞ 안건의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유출되어 현재 일본의 덴리대학[天理大學]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① 간송미술관, ② 리움 미술관, ③ 국립 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적중 문제 ⇨ 선다 적중

200제 10회 9번. 다음 자료에서 언급한 인물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는 조선의 문신으로,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불렸다. 글씨에서는 전서(篆書)·예서(隸書)에도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세조 때에는 임신자(壬申字)를 녹여서 새로 글자를 주조할 때 직접 글씨를 썼는데, 이를 을해자(乙亥字)라고 불렀다. 그는 작은 풍경화를 묵화로 즐겨 그렸으며, 영모화(翎毛畵)·산수화·인물화에도 뛰어났다. 사대부들의 처사적(處士的) 성향과 밀착되어 자연과의 친화관계를 보여주는 그의 소경인물화는 특히 유명하였다.

- ① 영통골입구도
- ② 송하보월도
- ③ 몽유도원도
- ④ 고사관수도

정답 ④

문 4.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등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 ② 이두와 차자(借字) 및 우리의 고유한 한자어(漢字語)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 ③ 왕실 혼례와 장례, 궁중의 잔치, 국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였다.
- ④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971쪽, 1000쪽 참고)

☞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 중 의궤류와 고문서를 약탈해 갔다. 외규장각 도서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한 임대 형식으로 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296권이 모두 반환되었다.

한편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는 직지심체요절 하권이 소장되어 있다.

문 5.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 ②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③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305~1306쪽 참고)

- ☞ 제시문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김구가 1948년에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2. 10)’의 일부이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여 김일성 등과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미·소 양군 철수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② 송진우, 김성수 등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대해 ‘일면타협, 일면저항’의 노선을 택했던 대지주 및 도시 부유층, ③ 이승만, ④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다.

알아두기

*대한국사 사료집 -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2-12>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조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가 다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욕신을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적중 문제 ⇨ 주제 · 사료 적중

600제 551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중략)…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2. 10.)

- < 보 기 >
- ㄱ. 신민회 회원으로 구국운동에 가담하였다.
 - ㄴ. 한민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활동을 펼쳤다.
 - ㄷ. 동학 농민군의 선봉장으로서 해주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 ㄹ. 홍명희, 안재홍 등과 연대하여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였다.

-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③

문 6. (가), (나)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 (나)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 보 기 >

- ㄱ. (가)-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 ㄴ. (가)-장문휴가 수군을 이끌고 당(唐)의 산둥(山東) 지방을 공격하였다.
- ㄷ. (나)-'건흥' 연호를 사용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 ㄹ. (나)-당시 국왕을 '대왕'이라 표현한 정혜공주의 묘비가 만들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257~258쪽 참고)

☞ (가)는 발해 무왕(제2대), (나)는 발해 선왕(제10대)에 대한 내용이다.

ㄴ. 무왕은 당나라에 대문예를 죽이도록 외교적 교섭을 폈으나 당나라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게 해 자사 위준을 죽였다.

ㄷ. 선왕이 즉위한 뒤 발해의 중흥기가 이루어졌다. 선왕의 재위기에는 건흥(建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체도를 완비하였다.

ㄱ. 무왕 시기에 수도를 동모산 지역에서 두만강 하류의 중경 현덕부로 옮겼으며, 다시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다가 동경 용원부로 이동하였다

ㄹ. 문왕에 대한 내용이다. 정혜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로, 정혜공주 묘비는 당시 유행하던 4·6 변려체로 쓰였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600제 86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왕은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기고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문왕은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여 자사 위준을 죽였다.
- ③ 남경남해부를 중심으로 일본도가 설치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 ④ 발해는 처음으로 대관과 간관을 따로 설치하였으며, 간관은 선조성 내에 좌상시, 간의 등의 관직을 두었다.

정답 ④

문 7.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 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공물이 운송되며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驛村) 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살인·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 ①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 ②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 ③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가·강원·평안·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 ④ 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 혁명을 꿈꾸었다.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388쪽 참고)

☞ 자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임격정’이다. 고, 이는 1559년부터 1562년까지 3년여에 걸쳐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구월산·서흥 등 산간지대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평안도와 강원도, 안성 등 경기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백성들에게 의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대규모 토벌로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 ① 백정 출신인 임격정은 상인, 대장장이, 노비, 아전, 역리 등 많은 무리들을 규합시켜 난을 일으켰다.
- ② 허균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저술하였다.
- ④ 정여립은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모반을 피한다는 서인의 탄핵을 받고 체포 직전 자결하였다.

문 8. (가),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 (나)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 ① (가)는 ‘운요호 사건’ 이후 체결된 것이다.
 ②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③ (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④ (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04쪽, 1020쪽 참고)

☞ (가)는 강화도 조약(1876), (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이다.

- ① 1875년 일본의 운요호는 부산항, 초지진, 영종도에서 포격을 가하고 살인과 약탈 및 방화를 자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조선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였다.
 ②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두 항구 추가로 개항하고, 개항한 항구에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하였다.
 ③ 임오군란이 일어난 후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 및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④ 1886년 조·프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교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허가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사료·유형·선다 적중

600제 418번. (가)~(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오가며 통상을 하도록 허락한다.
 (나) 다른 나라에 본 조약에서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허가할 경우 동등한 특혜는 미국 관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 ① (가)의 조약은 본 조약에서 수호 조건과 통상 조건이 동시에 다루어져 체결되었다.
 ② (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권을 조선정부에 귀속시켰다.
 ③ (다)는 갑신정변 이후 청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체결되었다.
 ④ (가)와 (나)는 최혜국 대우가 허용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정답 ②

문 9.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 ①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 ②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 ④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70쪽, 1257쪽 참고)

☞ 제시문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의열단 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함, 1923)’의 내용이다. 이 선언문은 의열단의 독립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이 잘 나타난 선언문으로, ‘민중 직접 폭력 혁명’과 ‘평등주의’를 토대로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 노선이었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자치론 등을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② 의열단원의 대표적 활동상으로는,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폭탄 투척,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등이 있다.

- ① 1909년, 미주의 공립협회 회원이었던 이재명은 귀국하여 매국노 이완용을 명동 성당에서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 ③ 장인환(대동보국회)·전명운(공립협회)은 일본의 통감 정치를 찬양한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하였다(1908).
- ④ 이범윤 부대의 참모총장으로 연해주에서 국내 진공 작전을 벌이기도 하였던 안중근은 이후 하얼빈 역에서 거사를 일으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1909).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1257쪽 사료 “조선혁명선언(전문)”

……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의식(衣食)의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백분지 일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구축(驅逐)할지며, 강도 일본을 구축하자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이제 폭력 - 암살, 파괴, 폭동 - 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1.조선총독 및 각 관(官) 관리, 2.일본천황 및 각 관 관리, 3.정탐노(偵探奴), 매국적(賣國賊), 4.적의 일체 시설물 이외에 각 지방의 신사(紳士)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적 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만일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中傷)하는 자는 우리의 폭력으로서 갚을지니라.

적중 문제 ⇨ 주제·사료·유형 적중

200제 1회 17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옳은 것은?

검열, 압수 모든 압박 중에 몇몇 신문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목적으로 자오(自鳴)하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내정독립, 자치, 참정권논자)나 강도 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 ① 윤세주, 김익상
- ② 강우규, 조명하
- ③ 이봉창, 윤봉길
- ④ 조소앙, 김규식

정답 ①

문 10.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ㄷ. 대한민국 대항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ㄱ→ㄹ→ㄷ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23쪽, 1036쪽, 1045쪽, 1048쪽 참고)

☞ ㄱ. 갑신정변(1884) 14개조 정강 ⇨ ㄴ. 갑오개혁(1894)의 흥범 14조 ⇨ ㄹ.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1898. 10)
⇨ ㄷ. 대한민국 국제(1899)

적중 문제 ⇨ 주제·유형·자료 적중

200제 7회 2번. 다음의 개혁안이 발표된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나)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할 것
(다)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세울 것
(라)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다) → (가) → (나) → (라)

정답 ③

문 11.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 인천 용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 강원 양양 오산리 출토 사람 얼굴 조각상

- ① 한자의 전래로 붓이 사용되었다.
- ②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 ③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 ④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70쪽 참고)

☞ 제시된 유물(가락바퀴, 치레걸이, 조개 껍데기 가면, 사람 얼굴 조각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③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어 조, 피 등을 재배하였는데, 농경의 출발은 신석기 전기의 후반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①, ④ 철기 시대의 유적에서는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고, 경남 창원 다호리에 서 붓이 발견된 것은 이미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② 청동기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인돌은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이었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200제 6회 2번. 다음 내용의 시대와 관련된 유물로 적절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조, 피, 수수 등을 지배하는 농경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경 도구와 토기가 제작되었고, 원시적이 수공업 생산도 이루어졌다.

- ① 가락바퀴
- ② 거푸집
- ③ 세형동검
- ④ 주먹도끼

정답 ①

문 12. 통일신라시대 민정문서(장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매년 작성하였다.
- ② 토지에는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④ 호(戶)는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530쪽 참고)

☞ 민정문서는 촌락 지배의 책임자였던 촌주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문서의 기록은 식년(式年) 기록과 추기(追記)로 나누어진다. 식년 기록은 3년마다 이루어졌으며, 추기는 전식년과 당식년의 중간 시점에 호구의 감소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200제 1회 13번. 통일신라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호두나무, 잣나무, 뽕나무 등 유실수와 소, 말 등 가축의 수까지를 기록하였다.
- ② 촌주위답은 내시령답과 함께 사유지인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다.
- ③ 인구는 촌락 단위를 바탕으로 연령별 6등급으로 남녀 모두를 조사하였다.
- ④ 사회적 이동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였으며, 이동의 주체는 개별인과 가호로 구분된다.

정답 ②

문 13.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 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대강 배웠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 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 ③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 ④ 정혜쌍수로 대표되는 결사운동을 일으켰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752~755쪽 참고)

☞ 제시문은 대각국사 의천이 주장한 교관겸수에 관한 내용이다. 의천은 1097년 중국 유학 이후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천태종을 창시하고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이후 교관겸수(敎觀兼修)와 내외겸전(內外兼全)을 제창하였으며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 ④ 정혜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눌이 주장하였다. 지눌은 돈오점수의 방법으로 정혜쌍수를 강조함으로써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600제 320번. 밑줄 친 인물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사방에서 병란이 일어나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나 오직 우리나라만은 편안하여 아무런 근심이 없다. 평화롭게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사방의 변경에 이른다. 남자는 밭에서 농사짓고 여자는 집에서 베를 짜며 부귀와 장수를 잃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국사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멀리 해외에 가서 범을 전해 와서 이 땅에 무궁하게 전해 준 데 기인한다.

- ① 원으로부터 들어온 임제선을 중심으로 선종의 혁신을 주도하려 하였다.
- ② 법화 신앙과 정토 신앙을 중심으로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 ③ 송에 유학하여 많은 불교 서적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천태종을 창시하고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 ④ 심성의 도야를 강조함으로써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답 : ③

문 14.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옳은 것은?

평양 대성학교와 정주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민족 자본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세웠다. 또한 민중 계몽을 위해 태극 서관을 운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 ① 보안회
- ② 신민회
- ③ 대한 자강회
- ④ 대한 광복회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72~1073쪽 참고)

☞ 제시문은 신민회(1907. 4)에 대한 내용이다. 신민회는 1907년 4월 안창호의 발기로 양기탁·이동휘·이동녕·노백린·김구·신채호·박은식 등이 참여하여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단체였다. 신민회는 오산 학교(정주)·대성 학교(평양)·보창 학교(강화) 등 주로 중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의 차원을 높이려 하였다.

- ① 보안회(1904)는 보국안민의 가치를 내걸었던 단체로,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대규모의 민중 집회를 열어 이를 철회시켰다.
- ② 대한 자강회(1906)는 헌정 연구회의 후신으로, 전국 각지에 25개의 지회를 설립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교육·언론·종교 등 문화 운동에 치중한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대한 광복회(1915)는 박상진, 채기중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공화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군자금을 모금하고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자료 적중

600제 474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 대성 학교 · 오산 학교를 설립하고 자기 회사를 세웠다.
-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주장하였다.

- ① 비밀결사로 신채호, 박은식, 이승훈, 김구 등이 참여하였다.
- ②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租借)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④ 입헌 군주정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의회설립운동에 앞장섰다.

정답 ①

문 1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층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고,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고,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 ①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 ②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 ③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④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의 사찰령에 반대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152쪽 참고)

☞ 제시문은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의 일부이다.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에서 양명학 중심의 유교 개혁과 적극적 교화 활동을 주장하였다.

- ① 문일평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민족정신의 회복과 민족사의 대중화 작업을 추구하였다.
- ② 정인보는 ‘얼’ 중심의 정신사적인 역사관을 강조하였다. 그는 ‘얼’이란 민족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얼’을 빼놓은 역사학은 쓸데없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한용운은 1921년 조선 불교 유신회에 참여하여 불교 정화 운동, 일제의 불교 장악 의도인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알아두기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1-146>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미하여 많은 성인이 뒤를 이어 전하고 현인이 강명(講明)하는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대발전을 하지 못한은 어찌서이며, 근세에 이르러 침체 부진이 극도에 달하여 거의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뇨. …… 그 원인을 탐구하여 말류(末流)를 추측하니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 첫째,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帝王)층에 존재하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고, 둘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주의(主義)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어린이)이 나를 찾는 주의를 지킴이고, 셋째, 우리 대한 유가(儒家)에서 쉽고 적절한 법문(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주자학)를 전적으로 숭상함이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200제 5회 15번. 다음 글을 쓴 사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목격한 최근의 역사는 힘써 연구해 볼 만한 일이다. 이에 갑자기부터 신해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3편 114장으로 만들어 통사(痛史)라 이름 지었다. 감히 정사(正史)를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포들이 국혼(國魂)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인정하여 버리거나 내던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① 1941년 임정의 건국강령으로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다.
- ② 조선광문회에 참여하였으며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
- ③ 1923년 의열단의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 ④ 조선 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여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정답 ②

문 16. (가)~(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나)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정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하였다.

(다)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① (가)→(나)→(다)
- ② (나)→(가)→(다)
- ③ (나)→(다)→(가)
- ④ (다)→(나)→(가)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345쪽, 347쪽, 351쪽 참고)

☞ (나) 거란의 1차 침입(성종, 993) 당시 고려군의 중군사(中軍使)로 출정한 서희(徐熙)는 안용진(안주)에서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압록강 이동의 여진을 토벌하고 여러 성을 쌓아 이른바 강동 6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가) 숙종은 윤관을 파견하여 2차례에 걸쳐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으나, 기병인 여진군에 보병 위주인 고려군이 이길 수 없어 모두 참패를 당하였다. 이에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동력을 강화한 별무반을 조직함으로써 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다) 최우 정권이 몽골의 침입에 대하여 강화 천도(1232. 7)를 계획하자, 유승단이 이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알아두기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전근대사 3-23> “별무반의 설치”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 산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또 승려를 뽑아서 향마군으로 삼아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고려사절요>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600제 111번. 다음 내용을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요의 소손녕이 침입하자 고려의 서희는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개척하고 요와의 교빙을 약속하였다.

ㄴ.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군사를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파하였다.

ㄷ. 거란이 사신과 낙타 50필을 고려에 보냈으나, 고려는 사신을 유배시키고 낙타를 만부교의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ㄹ. 요는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고려를 침략하여 개경을 함락하였으나, 귀주 등지에서 양규, 김숙홍 등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

- ① ㄷ-ㄹ-ㄱ-ㄴ
- ② ㄹ-ㄷ-ㄴ-ㄱ
- ③ ㄷ-ㄱ-ㄹ-ㄴ
- ④ ㄴ-ㄹ-ㄷ-ㄱ

정답 ③

문 17.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③ 기해예송은 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④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446쪽 참고)

☞ 조선 후기 예송 논쟁(현종)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을 보여준다. 기해예송(1659)은 효종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가 쟁점이 되어 일어났다. 이 때 송시열·송준길 등 서인은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허목·윤휴를 비롯한 남인은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해예송에서는 다수파인 서인이 승리하였다. 이후 1673년 인선왕후(효종비)가 죽자 생존한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갑인예송(1674)이 일어났다. 당시 서인 쪽에서는 9개월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하였는데, 서인 내부의 분열로 한당인 김석주가 산당인 송시열에 반대해 남인설을 찬성하였고, 이를 현종이 적극 지지함에 따라 남인이 승리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200제 7회 11번. 다음 주장을 내세웠던 봉당의 대표 인물로만 묶인 것은?

효종은 임금이었으니 새 어머니인 인조 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보 기>

ㄱ. 윤선도	ㄴ. 허목	ㄷ. 송시열	ㄹ. 송준길
--------	-------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①

문 18.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인좌의 난		규장각 설치

- ①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는 농민
- ② 금난전권 폐지를 반기는 상인
- ③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 ④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452쪽 참고)

☞ 이인좌의 난은 1728년(영조 4)에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경종의 죽음이 영조와 노론의 합작에 의한 독살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일으켰다.

규장각은 정조가 1776년(정조 즉위)에 설치하였는데, 본래의 왕실 도서관 기능에 비서실 기능, 문헌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고,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 부여하였다.

③ 영조 26년(1750) 균역법이 실시됨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결작미·어염세·선세·은여결세·선무군관포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결작미는 전국의 전결(평안도·함경도 제외)에 1결당 쌀 2두(또는 돈 5전)를 부과 징수하였다.

- ①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하여 고종 3년(1866)에 발행한 동전이다.
- ② 1791년, 정조는 체제공의 건의에 따라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시행하였다.
- ④ 대동법은 이원익의 주장에 의해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문 1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 ①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 ②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 ③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 ④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804쪽 참고)

☞ 제시문은 이황의 <성학십도>의 내용으로 이황의 사상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이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이는 기(氣)를 강조하는 주기론(主氣論)의 입장이었는데, 이이의 사상은 현실적, 개혁적 성격이 강하여 수미법, 10만 양병설과 같은 현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③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강학을 하기보다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학습자 스스로 깨우치는 심득(心得)을 중시하였다.
- ④ 이황 등 주자학파는 양명학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철저히 배척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600제 329번.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 현인과 군자들이 성학을 밝히고 심법을 얻어서 도를 만들고 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도에 들어가는 문과 덕을 쌓는 기초를 가르친 것이, 오늘날 해와 별같이 밝았습니다. 이에 감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에게 진술하여, 옛 제왕들의 공송과 기명의 끼친 뜻을 대신하고자 하옵니. ... 이에 삼가 종전에 있었던 것에서 더욱 뚜렷한 것만 골라 그림 7점을 얻고 그중 「심통성정도」는 정임은의 그림에다가 신이 만든 작은 그림 2점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밖의 그림 3점이 있는데, 비록 신이 만들었으나 그 글과 뜻이 조목과 규획에서 한결 같이 옛 현인이 만든 것을 풀이한 것이요, 신의 창작이 아닙니다. 이를 합하여 『성학십도』를 만들어서, 각 그림 아래에 외람되게 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조심스럽게 꾸며 올립니다.

- ① 독서당에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으며 사회경장론을 강조하였다.
- ②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으며, 천하동례에 입각한 예론을 내세웠다.
- ③ 일원적 이기이원론의 입장에서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였다.
- ④ 에도시대에 그의 저술이 일본각관으로 복간되어 일본의 근세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답 ④

문 20. 다음은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ㄷ.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 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 ① ㄱ→ㄹ→ㄴ→ㄷ
- ② ㄴ→ㄷ→ㄹ→ㄱ
- ③ ㄷ→ㄴ→ㄹ→ㄱ
- ④ ㄹ→ㄷ→ㄱ→ㄴ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189쪽, 1243쪽, 1250쪽, 1270쪽 참고)

- ㄴ. 대한 광복군 정부는 191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졌던 망명 정부로, 권업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189쪽 참고)
- ㄷ.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의 일이다. 일제가 약 250명의 병력으로 ‘월강추격대’를 편성하여 봉오동으로 진군해 오자, 대한북로독군부군(홍범도의 대한독립군+최진동의 군무도독부+안무의 국민회군)과 이흥수가 이끄는 대한신민단의 한 부대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일본군 침입자들을 맞아 전투 준비를 하였고, 대승을 거두었다.(☞ 1243쪽 참고)
- ㄹ.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의 지도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1932), 흥경성 전투(1933)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1250쪽 참고)
- ㄱ.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되었다.(☞ 1270쪽 참고)

적중 문제 ⇨ 주제·유형·선다 적중

200제 2회 20번. 독립무장투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쌍성보 전투 ㉡ 봉오동 전투
- ㉢ 간도 참변 ㉣ 호가장 전투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